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7. 23.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약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후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브릿지.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3장 6~18절

다 같이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니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함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0. 에브론이 헛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헛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헛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헛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말씀 나눔 그리스도인의 삶 인 도 자

포스트모던 사회는 세속을 넘어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틀린 것이 없고 모두 다 다름 속에서 포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만큼은 냉정하고 높은 잣대로 판단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적 양심과 믿음의 삶이 뒤따를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세속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도 존경의 시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 인격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개인과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아브라함이 헛 족속을 찾아가 아내를 장사 지내고 매장할 소유지를 줄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때 헛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임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두렵고 존귀한 존재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는 이곳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는 삶을 삽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높이는 헷 족속 앞에서 조금의 교만함도 비추지 않고, 헷 족속에게 머리를 숙이며 여러 번의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본문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본문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기에서 ‘몸을 굽히고’라는 것은 비굴하게 아첨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감사의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크리스천들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모습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를 존중하여 그들에게 거부감 없이 우리를 대하도록 실천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물질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삽시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위한 땅을 사는 거래에서 공짜를 원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본문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웬만한 일은 모두 기브ئن 테이크입니다. 대부분 물질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투명한 금전출납이 가장 기본이며, 세상이 크리스천을 볼 때에도 청렴한 삶을 사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물질을 정당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거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적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 속에서 희생과 손해 보는 삶을 각오하며 힘들긴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나는 직장, 학교, 이웃 등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2.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의 말투와 태도는 존중을 담고 있나요?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3.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태도를 지키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 주고 섬길 수 있도록
4.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서도록
5. 아픈 성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태도와 삶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한 태도로 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빛을 비추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